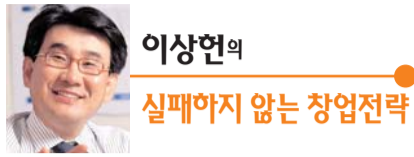


교정시설에서 꿈꾸는 창업가의 꿈



이상연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전국의 교정시설에서도 창업교육등 외부 사회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출소를 일정기간 남겨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일반인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은 사회적관계망에서의 자율경쟁을 의미한다. 또한 양질의 정보와 경험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금의 건전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형자들 대부분 신용상태나 재무상태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다. 창업은 철저히 투자대비 수익성으로 대변된다. 자금의 규모에 따라 입지와 아이템 선정, 그리고 마케팅을 통한 수익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메커니즘이 창업프로세스다. 수형자들에게 대한 창업교육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하자. 하지만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해 창업의 허와 실 그리고 실무를 교육할 수 있

어야한다. 그러나 실정은 참으로 열악하다 교도소내 교육장에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접근하는 인터넷 조차 사용을 할수없는 곳이 태반이다. 창업은 철저한 정보와의 싸움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는 많은 수형자들의 자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이기도하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함께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만 사회현실은 전자자라는 오명이 취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사회적 시선 또한 굵지만은 않은것도 사실이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창업일 수밖에 없다.

창업자금의 지원정책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현행제도상 정부자금지원은 대부분 신용상 문제가 없는 창업자에게만 저리로 대출되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창업자들에게는 전국 대기업과 같은 공공성격의단체나 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미소금융이 유일하다 하겠다. 취업이 어려운 수형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

자금의 확대실시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실패결과와 함께 많은 세금이 소멸되고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예로 중기부는 청년상인육성사업에 2015년부터 153억을 투입하여 499개의 청년점포를 지원했지만 그중 184곳이 폐업하여 36.9%의 폐업률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하지 않고 운영하는 315점포중 112점포는 사업의 취지인 청년창업자가 아닌 대체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사업은 전체 499중 296곳의 생존으로 59.3%의 폐업률이 현실이다. 청년창업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정책일게다. 수형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범법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모든 지원정책에서 도외시되는 실정이 안타깝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한 강력한 무기와 정보를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되어지길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KEB하나은행, UAE 파병 아크부대와 자매결연
KEB하나은행은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되어 있는 대한민국 육군 UAE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과 국고금 관리 및 각종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자매결연 체결 후 노영준 KEB하나은행 아부다비지점장(사진 왼쪽)과 김현태 UAE군사훈련협력단장(중령)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 위촉식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운철·오른쪽 네번째)은 5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은 고객·소비자단체·학계·언론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트렌드 및 권익침해 사례를 공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임기는 1년이다. /BNK경남은행

NH투자증권,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투자 나선다

투자펀드 조성 양자협력서 체결 국제기구 협력·글로벌 투자 강화

NH투자증권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투자운용기구인 IDB인베스트와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양자협력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총 48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다자개발은행 IDB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민간부분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 설립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우선 미화 3억달러 규모의 1호 펀드를 NH-아문디자산운용에 설립하고 NH투자증권이 기관투자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투자 집행은 IDB Invest가 맡아 역대 회원국(26개국)의 금융, 에너지, 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왼쪽)이 5일 여의도 본사에서 IDB 인베스트의 헤마 사크리스탄 최고운영책임자(CIO)와 양자협력서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프라 등의 민간기업에 선순위 대출 투자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서 체결을 계기로 양 사는 I

DB 회원국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국경간(cross-border) M&A, 인수금융 등 IB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IDB Invest와의 양자협력서 체결은 국제사회 원조 기여 및 중남미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NH투자증권의 해외 투자 및 자문 역량 향상은 물론 글로벌 IB로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IDB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19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현재 역대 26개국과 해외 22개국 등 총 48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주인기 공인회계사 국제회계사연맹회장 취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인기 공인회계사(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IFA)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주인기 회계사는 2016년부터 2년간 IFAC 부회장을 수행했고,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IFAC은 전 세계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여개 회계전문가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계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부회계기준 등 회계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에어부산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이 일본 후쿠오카 관광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 대구지역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

에어부산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을 2년 연속 시행했다.

5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번 에어부산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에는 대구 지역 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된 축구 꿈나무 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에어부산의 취항지인 일본 후쿠오카로 출

국해 5일까지 히타, 다자이후 등 규슈 지역을 둘러본다.

에어부산 측은 이번 여행은 단순 해외 관광이 아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행 일정 역시 축구 꿈나무 청소년들을 위해 일본 프로 축구 리그(J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시간도 보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계 '점자의 날' 맞아 시각장애아동 위한 봉사활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점자의 날(11월4일)을 맞아 회원사와 함께 지난 2일 서울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나눔 세상, 좋은 이웃 점자 동화책 만들기'로 진행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남성, 서연이화, 세방그룹, 한국콜마, SM그룹, 엘케이, 영진티아이에 등 10개 회원사와 중견권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고교생 '스마트 앱 챌린지 2018' 시상식

중기부-SK플래닛 349개팀 중 21개팀 수상

유저가 보낸 메신저나 댓글을 분석해 메일의 감정을 판단하고 조언이나 문구를 제시해주는 서비스인 '소나기'(충남 아산 충남삼성고등학교팀), 그림자 위로 공을 굴리려 퍼즐게임 'Shadow Play'(경기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습관 교정을 도와주는 스마트 밴드 'Reminder'(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부산자동차고팀).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 만들어 출품한 '스마트 앱 챌린지 2018'에서 부문별 대상을 받은 앱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함께

5일 경기 성남 판교 SK플래닛 본사에서 '스마트 앱 챌린지 2018'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앱 챌린지'는 2011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최대의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로 지난해까지 총 2580개 팀이 참가해 300여 개의 앱을 선보였고 이 가운데 151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엔 전국 72개 학교에서 총 349개 팀, 1291명이 지원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 분야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이들 3개 팀을 포함해 최종 21개 팀이 본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경영마케팅 국 부국장 이상민 ▶IT과학부 부장 김성욱 ▶IT과학부 기자 송혜리
- ◆중앙신문 ▶상무이사 원유관
- ◆경북 울진군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김창수 ▶5급 전보 ▶총무과장 김광대 ▶일자리경제

과장 김중환 ▶의회사무과장 김진오

부음

▲안수연 씨 별세, 우희구(GH신소재 사장)씨 모친상, 김선한(연합뉴스 마케팅본부 고문)·홍인식·김학도·김영호씨 장모상=5일 오전 9시,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1599-3114.